

<HEREN> CLASSIC SERIES 1

# HEREN

아트

## COLLECTOR'S WORLD

한국 최고의 갤러리들이 꿈은 젊은 아티스트 17인  
세계적인 아트 페어 하반기 스케줄



# 7 MASTERS

매달 <HEREN> 콘텐츠의 중심점 역할을 해온 기사로 'Interview' 칼럼을 빼놓을 수 없다. 사색의 오솔길을 내는 시인과 인문학자들, 조용히 세상을 바꿀 힘을 길러온 문화인들, 그중에서도 가장 지면을 풍성하게 채워왔던 건 동시대와 가장 친밀하게 호흡하고 있는 미술가들이었다. <HEREN>에 가까이 방대한 자기 작업을 열어 보였던 컨템퍼러리 아트 거장 7인, 그 작품처럼 세월이 지나도 결코 의미가 바래지 않을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본다. editor 박지혜

## 바늘과 보따리와 불과 바람

서방의 평론가들로부터 '포스트 백남준'이라 칭송받고 있는 미술가 김수자가 10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열었다. 캔버스와 붓 대신 바늘과 이불보로 끝없는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더니, 이번에는 물과 불과 흙과 공기로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한다.

editor 오유리 photographer 이승우 photo 김수자 스튜디오

김수자는 롯데 높은 현대미술계가 '백남준의 뒤를 이을 작가'로 칭송해 마지막을 뿐 아니라 수많은 비엔날레를 통해 세계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21세기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작가다. 정적이고 명상적인 그의 작업은 충격과 파격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현대미술의 아우성 속에서 홀연히 빛을 발해왔다. 2005년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빌딩 전망판을 3개월 동안 장식했고, 2006년에는 베니스 페니체 극장을 빛과 색, 숨소리로 뒤덮은 퍼포먼스 '호흡'으로 찬사를 받았다. 2011년 봄, 시애틀에 '뉴캠퍼스(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전 세계에 긍정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세우는 혁신적 휴머니즘 센터)'를 세우는 빌 게이츠 재단이 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지명한 작가도 'Kimssooja'였다.

국내 미술계는 오랫동안 그의 존재를 그리워했다. 김수자는 1999년 이후 줄곧 뉴욕에 거주하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동해왔다.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를 떠났던 겁니다. 나 자신을 절벽에 놓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정신은 가장 침어한 상태였지요." 그렇게 정글과도 같은 현대미술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 언어를 인정받으며 주류 작가로 생존하고 있다. 2000년 로댕 갤러리에서 열렸던 개인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 <지수화풍(Earth, Water, Fire, Air)>展(아틀리에 에르메스, 3월 28일까지)이 반가운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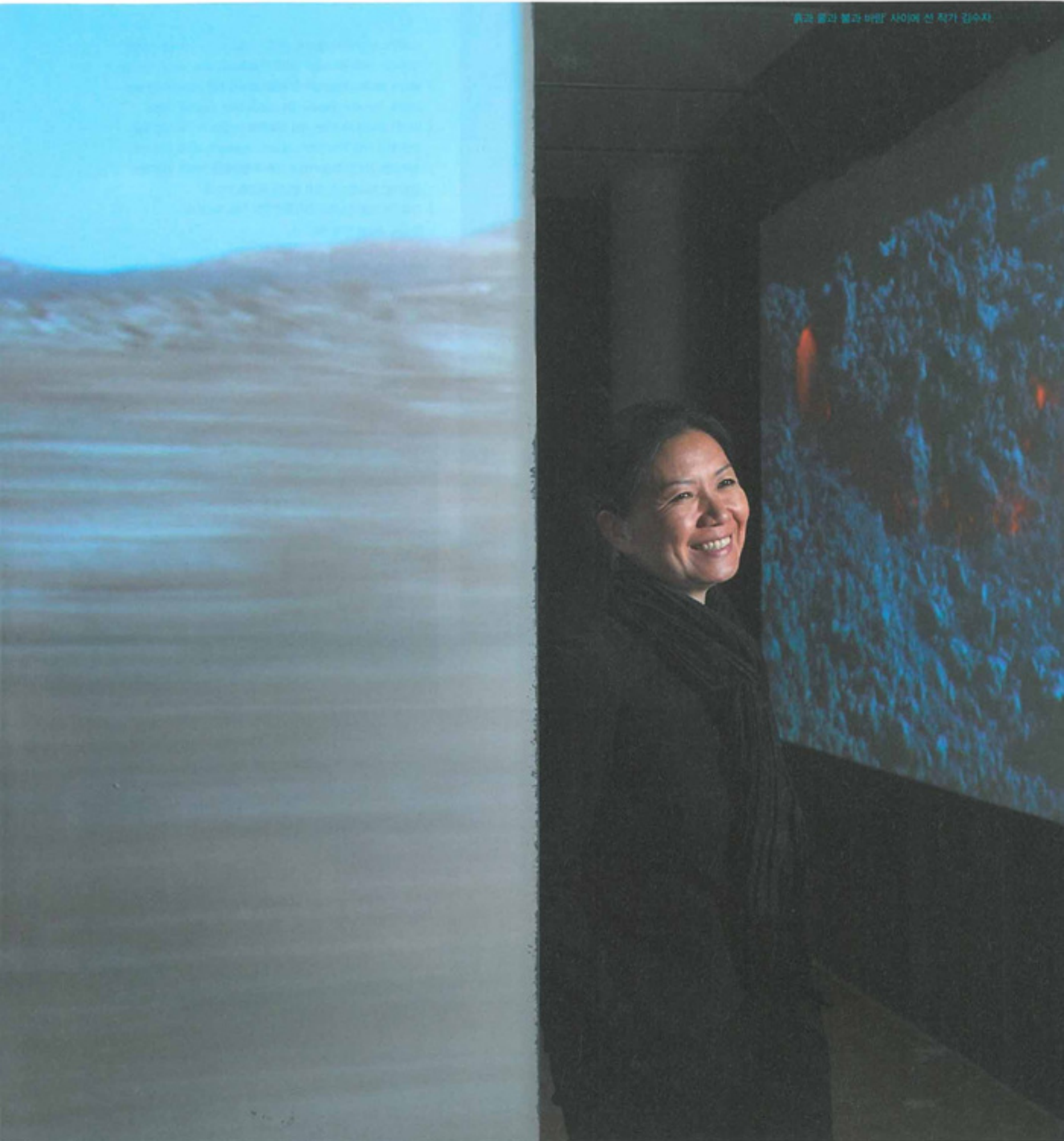
스페인 린자로테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에르메스 재단이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이번 작업은 '바늘 여인'이나 '보따리' 연작처럼 작가가 등장하는 대신,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자연의 네 가지 원소가 주인공이다. 7개의 채널을 통해 작가가 직접 촬영한 5~9분짜리 영상물이 동시에 상영되는데 절벽에 끝없이 몸을 던지는 파도와 그 위로 생성되는 아름다운 무지개, 빨갛게 달궈진 용암이 땅을 뚫고 나왔다가 식어버리는 모습, 파란 하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 등 자연의 모습을 가감 없이 담은 것이다. "작품 의뢰를 받은 다음, 린자로테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카나리제도는 오랜 화산활동으로 화산재와 현무암으로 뒤덮여 있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지요. 드디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 수, 화'라는 자연의 원소에 '풍'이라는 순환과 역동의 에너지를 더해 자연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듯하지만 별개가 아닙니다. 물속에는 불의 요소가, 땅속에는 물의 요소가, 불속에는 공기의 요소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우러져 있지요." 각각의 영상에 '공기의 물', '땅의 불', '물의 공기' 등 4개의 원소들이 짝을 이루며 순환하는 재목이 붙어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작가는 자연은 물론 인간도 결국은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명상적이고 직관적인, 가장 김수자다운 방식으로, 일찌감치 'Kimssooja'를 세상에 알린 건 '보따리'와 '바늘'이었다. 작가는 이 운명적 모티브와 만난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1983년이었지요. 서양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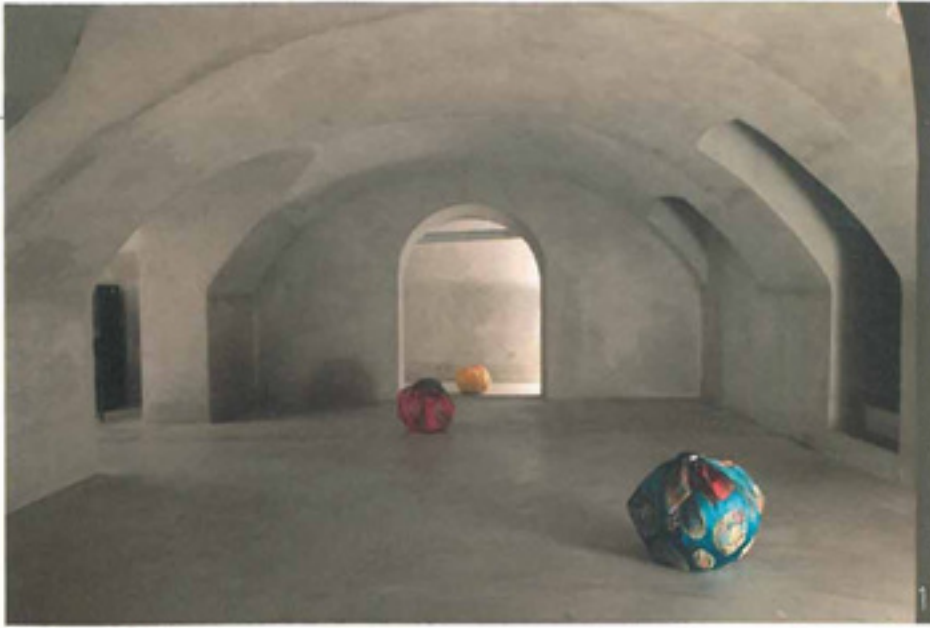


# KIM SOO 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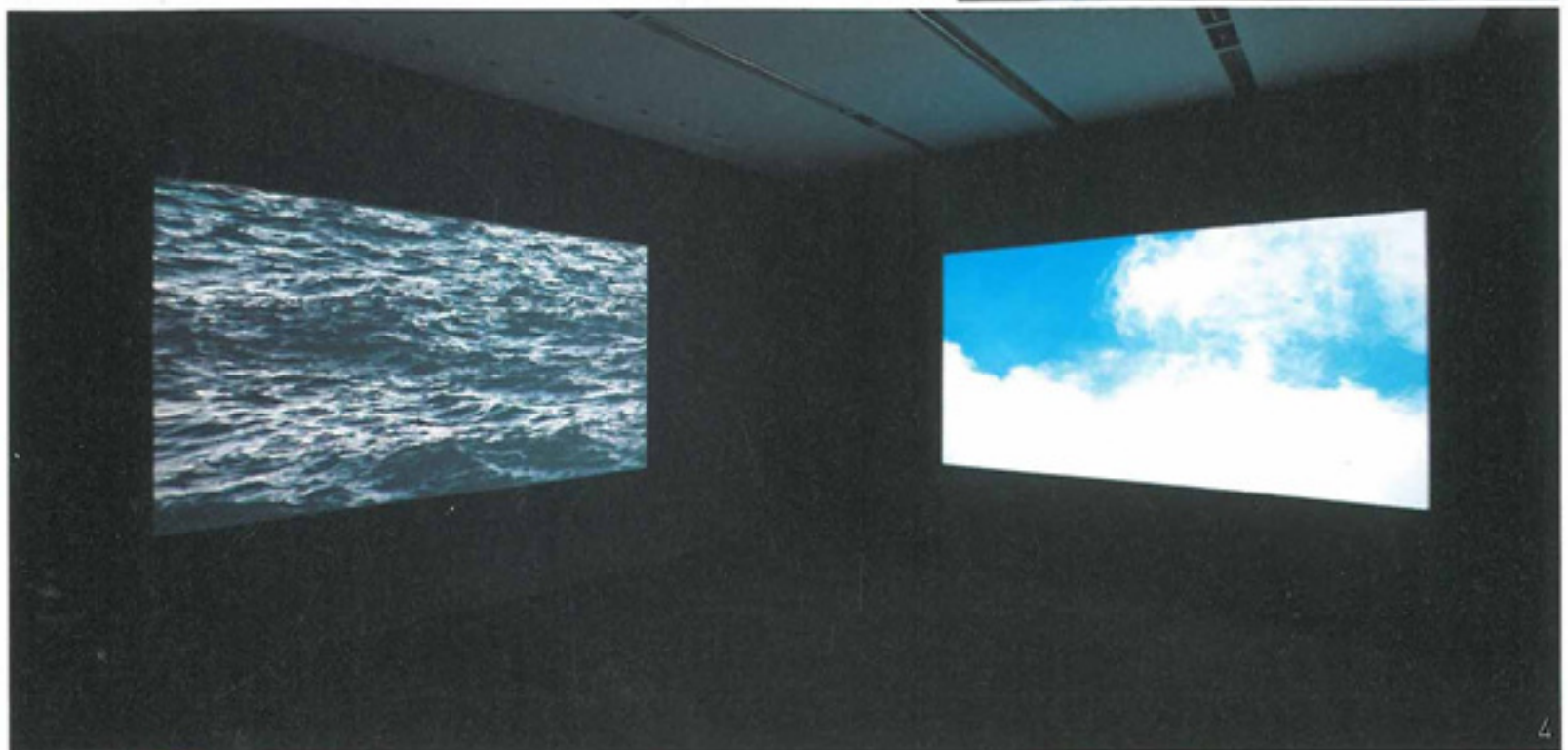


꿈과 물과 별과 바람 사이에 선 작가 김수자





- 1 알록달록한 원색의 이빨보를 꿰매고 싸매서 만든 보파리를 이용한 설치작업 '보파라(Bottari)', 2005, Installation at Kewenig Gallery.
- 2 베니스 페니체 극장에 설치된 '호흡: 보이지 않는 거울/보이지 않는 바늘(To Breathe: Invisible Mirror/Invisible Needle)', 2006.
- 3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는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담은 영상 작품 '바늘 여인(A Needle Woman)', 2005,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신의 몸을 바늘로 온유해 행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철학적인 퍼포먼스로 세계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 4 아틀리에 예르베스에서 전시됐던 영상 작품 '지구화풍(Earth, Water, Fire, Air)'.





전공한 화가로서 다양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캔버스라는 대상과 나의 일체감을 느낄 수 없어 괴로웠지요.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이불보를 꿰매고 있었는데, 바늘을 천에 갖다대는 순간 충격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손끝을 타고 나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경험이었지요. 바늘과 천의 수직 수평적 구조야말로 그동안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개념들을 풀어내줄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인도어로 그녀의 이름 수자가 바늘을 뜻한다니,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운명이 아닐 수 없다!

“바늘이 몸이라면 실은 정신이자 마음입니다. 바느질은 자와 타를 잇는 행위이고 치유의 행위이며 인간의 몸과 기억을 잇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다양한 사연이 담긴 천 조각들을 꿰매 만든 이불보를 빨랫줄에 걸어놓는 설치작업 ‘빨래하는 여인(A Laundry Woman)’은 영상작업 ‘바늘 여인(A Needle Woman)’으로 이어졌다. ‘바늘 여인’은 도쿄와 상하이, 런던 등의 거리 한복판 봉비는 인파 속에 묵묵히 서서, 작가 스스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엮어주는 바늘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연작이다. ‘꿰매는’ 작업은 자연스럽게 ‘싸매는’ 작업으로 연결됐다. “이불보는 펼쳐져 있을 때는 가족과 사랑과 꿈과 정적을 의미하다가 공공 싸매지면 떠남과 이별의 의미를 품게 됩니다. 보따리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은 물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지요.” 김수자는 알록달록한 원색의 이불보 보따리를 트럭에 가득 싣고 11일간 2727km를 주행한 영상 작품 ‘보따리 트럭’을 통해 머무르는 순간 떠날 것을 준비하는 인간의 삶을 은유했다. 뒤상이 그랬듯이 이불보와 바늘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싸고 꿰매는 ‘일상적 행위’에 예술적 온기를 입힌 김수자의 철학적인 작업은 평단과 관객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덕분에 ‘보따리’라는 단어는 서양미술사에 길이 남을 생명력을 부여받았다!

늘상 뒷모습만을 보던 작가를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생경한 경험이었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소녀처럼 말갈게 웃는 얼굴도 그렇지만 낮고 조용한 음성은 그녀가 현대미술사에 기록될 일련의 센세이셔널한 작업들을 홀로 해왔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이렇게 작고 가녀린 몸으로 길 한복판에 가부자를 들고 앉아 보시를 요구하고(A Beggar Woman, 2000~2001), 해발 3000m 과 테말라 산을 걸어서 올라 솟구치는 용암의 모습을 포착해낸 것이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촌가시내가 미술가가 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척척 해내고 있는 것은 스스로 말하듯 그저 운명이었을까도 모른다.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주로 DMZ 근처를 옮겨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낮에는 가재 잡고 나물 캐러 다니고, 해질 녘에는 뒷산에 올라가 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놀았지요. 늘 가깝게 느꼈던 자연이 지금 작업의 모태가 되었을 겁니다. 생각하면 우리 가족의 삶이 유랑자의 삶이었어요. 수없이 보따리를 싸고 풀며 살았지요. 이사 가면서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를 유랑하며 부유하는 노마드이자 보따리 작가로서의 운명은 그때부터 배태된 것인지도 모른다. 며칠 뒤엔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해 파리로 떠난다는 그녀와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발목까지 눈이 쌓여 있다. 몇 겹씩 옷을 껴입어야 하는 불편함과 교통지옥 같은 혼란은 ‘현상’일 뿐. 이 거대 도시에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추위는 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다시 뒤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요란하거나 호사스럽지 않게, 그러나 강력한 명상적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그의 작업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7개의 화면에서 꿈틀대고 있는 치유와 포용의 힘을 느끼고 싶었다. 강박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묻고, 드디어 자연의 신성함 앞에 고요히 엎드리게 만드는 위대한 힘! 이것이야말로 오만한 현대미술이 이 작은 여인을 주목하는 이유다.

HEREN 2010년 2호



5 마드리드 크리스탈 궁전 바닥에 거울을 깔아 빛을 가득 들여놓고, 작가의 숨소리와 영상 음악으로 가득 채운 ‘호흡: 거울 여인(To Breathe: A Mirror Woman)’, 2006.

6 ‘뭄바이 빨래터(Mumbai: A Laundry Field)’, 2007~2008. 인도 뭄바이의 빨래터와 슬럼가 골목, 봉비는 출퇴근 열차 등을 촬영한 4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영상 작품. 남루한 현실 속에서도 역동적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담았다.